



#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학생 마음건강 정책, 보호인가 관리인가

선별·분류·연계를 넘어, 학생의 삶을 잃는 학교 상담과 교육을 묻다

학생의 고통을 학교는 '삶의 질문'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정신건강 위험 신호'로 분류할 것인가. 이 토론회의 목적은 실제 위기 학생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분류와 감시가 아니라 학생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위기 학생 보호는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의 삶을 위험관리 체계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

실제 위기 학생 보호는 필요하지만, 학생의 성장 과정 전체가 정신건강 위험관리 언어로 번역될 때 학교는 학생을 이해하는 공간이 아니라 선별·분류·관리하는 공간이 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 ■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10시

YouTube 황심소: 황상민의심리상담소 Live + Zoom 참가

### ■ 누구나 참여 가능

학부모 · 교사 · 상담사 · 교육 관계자 · 시민 ·  
학생 마음건강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 참여 링크는 WPI심리상담코칭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해방: WPI심리상담코칭센터

WPIPAINFREE.COM

02)6263-2440 / wpipc@naver.com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길 26 (체부동6)



# 토론회의 핵심 취지

이번 토론회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하나의 정확성만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가 학생의 어려움을 어떤 언어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자리입니다.

학생이 무기력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친구와 갈등하고, 학교가 숨 막힌다고 말할 때, 학교는 먼저 “우울 위험인가?”, “관심군인가?”, “전문기관 연계 대상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그 반응 안에는 입시 압박, 가족 갈등, 관계 단절, 자기 삶의 기준 상실, 자기 존재의 언어를 잃어버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 문서는 이 지점을 “학생의 고통을 삶의 질문으로 들을 것인가, 위험 신호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다음 질문을 공론장에 올리는 자리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을 살리는 제도인가, 아니면 학생을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제도인가.**

## 토론회의 5대 핵심 이슈

### 이슈 1.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가, 관리하는가

실제 위기 학생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살 위험, 자해, 학대, 심각한 고립, 폭력 위험에 놓인 학생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호의 논리가 학교 전체를 지배할 때입니다. 학생의 혼란, 긴장, 저항, 무기력, 관계 갈등, 수업 거부 모두가 “위험 신호”로 읽히면, 교육은 학생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학생을 분류합니다.

**핵심 질문:**

**학생의 어려움은 교육적 이해의 대상인가, 정신건강 위험관리의 대상인가?**

### 이슈 2. 학생의 내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우울, 불안, 자살 위험, 충동성, 관계 어려움, 가족 갈등과 같은 민감한 내면 정보를 다룹니다. 이 정보가 담임, 상담교사, 학교 협의체, 보호자, 외부 전문기관, 행정 체계 안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첨부 문서는 학생의 내면 정보가 가장 민감한 인권 정보이며, 수집·공유·연계 과정이 엄격히 제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핵심 질문:**

**학생과 학부모는 정말 알고 동의하는가, 아니면 학교 절차에 응하고 있는가?**

### 이슈 3. 고위험군·관심군이라는 언어는 학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관심군”, “우선관리군”, “고위험군”, “자살위험군” 같은 표현은 행정적으로는 지원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는 자기 이해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느 순간 “나는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위험한 사람”, “나는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고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핵심 질문:**

낙인은 외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문제 아닌가?

### 이슈 4. 교사는 교육자인가, 위험관리자인가

현재 제도는 교사에게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라”는 압박을 줍니다. 교사는 학생의 삶을 읽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 기록, 보고, 연계, 사후관리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첨부 문서도 교사에게 위험관리자의 역할을 떠넘기지 말고, 학생의 삶과 관계를 읽는 교육자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

학생을 살리는 교사의 힘은 체크리스트에서 나오는가, 관계에서 나오는가?

### 이슈 5. 정신의학 모델은 필요하지만, 학교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서 의학적 개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의학 모델이 학교생활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 언어가 되면 교육은 위험관리로 바뀝니다. 정신의학 모델은 증상, 위험, 진단, 치료, 관리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교육의 언어는 삶의 맥락, 관계, 실패, 방향, 기준과 믿음의 회복을 다룹니다.

**핵심 질문:**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와, 교육적·상담적 이해가 먼저 필요한 삶의 어려움은 어디서 구분되어야 하는가?

# 발제문

##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근본 질문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학생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의 고통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입니다.

자살 위험, 자해, 학대, 심각한 고립, 폭력 위험에 놓인 학생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가 그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는 학생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학생의 무기력, 저항, 분노, 관계 갈등, 수업 거부, 침묵을 우리는 삶의 신호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 위험, 부적응, 충동성, 고위험군, 관심군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문제는 단순히 검사가 정확한가, 부정확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검사가 학교 안에서 학생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게 만드는가입니다.

학생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학생은 흔들립니다. 친구와 싸우고, 교사에게 반항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짓눌리고, 자기 미래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기 삶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반드시 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긴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 모든 흔들림을 정신건강 위험 신호로 먼저 읽기 시작하면, 학생은 자신의 고통을 자기 언어로 말하기보다 시스템이 알아듣는 증상 언어로 배우게 됩니다.

“힘들다”는 말은 “우울 위험”이 됩니다.

“학교가 숨 막힌다”는 말은 “부적응”이 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자살 위험 문항”이 됩니다.

이 순간 학생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묻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인가”를 확인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토론회는 정신건강 지원을 반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위기 학생은 더 전문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의 성장 과정이 위험관리 언어로 포획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내면 정보는 가장 민감한 인권 정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고위험군, 관심군 같은 분류 언어가 학생의 자기이해와 학교생활에 어떤 낙인을 남기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위험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관계를 읽는 교육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학교 상담은 정신의학적 선별과 연계 중심에서, 학생의 삶의 맥락과 기준과 믿음을 읽는 교육적 상담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던질 질문은 단순합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을 살리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학생을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제도입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자유롭게 자기 삶을 해석하는 인간을 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위와 시스템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학생의 고통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삶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학교가 그 질문을 듣지 않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때, 교육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질문을 다시 학교와 사회 앞에 세우는 자리입니다.

# 1) 황상민 WPI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 심리학 박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문제는 검사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검사가 학생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학생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학교가 먼저 묻는 질문이 “위험군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학생은 어떤 삶의 기준을 잃었는가?”, “무엇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학교가 숨 막히는 공간이 되었는가?”입니다.

학교는 병원이 아닙니다.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은 자기 삶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교육의 책임은 학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삶을 자기 언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황박사가 던지는 핵심 질문

“정신건강 위험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명분이, 학생의 존재 질문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 2) 조승연 교사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을 만나는 일보다, 학생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 더 큰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학생이 갑자기 수업을 거부하거나, 친구와 갈등하거나, 무기력해질 때 교사는 그 아이의 삶을 천천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록해야 하고, 보고해야 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필요하면 연계해야 합니다.

물론 위기 학생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계속 위험관리자의 위치에 놓이면, 학생과의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학생도 교사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문제 학생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교사를 돕는 제도인지, 아니면 교사를 책임 회피와 위험관리 절차의 말단 수행자로 만드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 조승연 교사의 질문:

“교사는 학생의 삶을 읽는 교육자인가,  
아니면 위험 징후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관리자인가?”

### 3) 박미서 학교상담사

학교상담은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안전하게 꺼내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먼저 오고, 분류가 먼저 오고, 관심군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으면 상담은 이미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시작됩니다.

학생은 상담실에 들어오면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록될까?”, “내가 이상한 아이로 보일까?”,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질까?” 이 불안이 생기면 학생은 자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만큼만 말합니다. 그러면 상담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이 해야 할 일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삶의 구조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학생이 어떤 기준에 눌러 있는지, 어떤 믿음이 무너졌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는 학교상담이 위험관리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 이해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 박미서 상담사의 질문

“학생은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평가받고 분류된다고 느끼는가?”

### 4) 김수정 워킹맘

저는 관세사로 일하는 직장인이지만, 아이 문제 앞에서는 늘 불안한 엄마였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 있는 아이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학교에서 “검사를 해보자”, “상담을 받아보자”, “전문기관에 가보자”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도움의 말인지 낙인의 시작인지 부모는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요구하는 절차에 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보는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나중에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설명받았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는 정말 동의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하라는 절차를 거부하기 어려워서 따르는 것입니까?

아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문제 있는 아이”로 먼저 보이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그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 김수정님의 질문

“부모는 정말 알고 동의하는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절차에 응하는가?”

## 5) 이수연 변호사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의 내면 정보, 정신건강 정보, 자살 위험, 가족 갈등, 관계 어려움과 같은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가 학교 안에서 수집되고, 상담 과정에서 기록되고, 보호자에게 전달되고, 외부기관으로 연계되고, 다시 학교로 화신되는 구조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서 사용됩니까? 얼마나 보관됩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삭제나 정정,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학생은 학교라는 권위적 공간 안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안내문을 받고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질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정보 수집과 공유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낙인적 분류가 학생의 자기이해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내면이 행정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수연 변호사의 질문

“학생의 내면 정보는 누구의 것이며, 국가는 어디까지 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 6) 김지현 WPI 상담사·엄마

저는 평범한 엄마로 살면서, 동시에 WPI 상담사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엄마로 아이를 볼 때도, 상담사로 내담자를 볼 때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기력할 때, 우리는 쉽게 “게으르다”, “우울한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면 “공격적이다”라고 보고, 학교를 싫어하면 “부적응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WPI 상담에서 보면, 그 행동 뒤에는 아이가 붙잡고 있던 기준과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잘해야만 사랑 받는다”, “나는 실패하면 끝이다”,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나는 학교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같은 믿음이 아이를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자기 삶을 버티고 있었는지, 어떤 믿음이 무너졌는지, 어떤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저는 학교 상담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험군으로 부르기 전에, 그 아이가 어떤 삶의 문장 속에 갇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 김지현 선생의 질문

“아이의 문제 행동 뒤에 있는 기준과 믿음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상담하고 있는가?”

## 7) 김미정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아픔해방의원 원장

저는 소아청소년을 만나는 의사로서, 실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계획이 있거나, 반복적 자해가 있거나, 학대 피해가 있거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태에 있는 학생은 즉각적인 보호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의 흔들림이 곧 질병은 아닙니다. 사춘기의 혼란, 입시 압박, 가족 갈등, 친구 관계의 상처, 학교에서의 소외는 학생의 삶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모든 어려움을 진단과 치료의 언어로 먼저 해석하면, 오히려 학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즉각적 위험이 있는 학생은 빠르게 전문적 개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학생에게는 먼저 삶의 맥락을 듣고,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기준과 믿음을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상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신의학이 학교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위기의 순간에 필요하지만, 학생의 삶 전체를 해석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김미정 원장의 질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와, 삶의 맥락을 먼저 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학교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학생 마음건강 정책 전환을 위한 5월 22일 토론회 선언

우리는 학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자살 위험, 자해, 학대, 심각한 고립, 폭력 위험에 놓인 학생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학생의 성장 과정 전체를 정신건강 위험관리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니다.

학생은 자기 삶을 찾아가는 존재다.

학생이 무기력할 때, 학교는 먼저 “우울 위험인가?”라고 묻기 전에 “이 학생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물어야 한다.

학생이 학교가 숨 막힌다고 말할 때, 학교는 먼저 “부적응인가?”라고 묻기 전에 “이 학생은 어떤 삶을 살고 싶었기에 지금 숨이 막히는가?”를 물어야 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재검토는 위기 학생 보호를 포기하지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선별·분류·연계 체계가 학생의 교육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자기이해, 존재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토하자는 요구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위기 학생은 더 전문적으로 보호하되, 모든 학생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보는 선별 체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내면 정보 수집·열람·공유·보관·외부기관 연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설명권, 동의권,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고위험군·관심군과 같은 낙인적 분류 언어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를 위험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관계를 읽는 교육자로 회복시켜야 한다.

여섯째, 학교 상담은 정신의학적 선별과 연계 중심을 넘어, 학생의 삶의 맥락과 기준과 믿음을 읽는 교육적 상담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고통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삶의 질문일 수 있다.

학교가 그 질문을 듣지 않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때, 교육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가 된다.

우리는 묻는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을 살리는 제도인가, 아니면 학생을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제도인가?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자유롭게 자기 삶을 해석하는 인간을 기르고 있는가, 아니면 권위와 시스템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 올린다.



통증해방:  
**WPI**심리상담코칭센터  
WPIPAINFREE.COM